

“사업 실패, 죄인 아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이 ‘재기’”

Q 르포
재기중소기업개발원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저 험한 벌판을 걸어 가보세. 가다보면 폭풍도 지나고 캄캄한 밤도 지나갈 거요. 높은 산을 오를 때도 있소. 푸른 초원도 지나갈 거요. 서로를 위하고 우리가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을 이겨 낼 거요.”

2026년 4월 15일 경남 통영 한산면 죽도.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어둠이 걷히지도 않은 오전 5시. 안치환의 ‘우리’가 재기중소기업개발원(재기개발원) 전체에 울려 퍼진다. 기상 음악이다.

재기개발원 뒷편 산속 텐트에서 열흘 넘게 생활하며 캠프에 참가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 둘씩 연수원 운동장으로 모여든다.

조별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 “다 된다”를 힘차게 외치며 남해바다의 새벽을 깨운다.

이들은 재기개발원이 폐업 등으로 재도전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202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재도전캠프’ 5기 참가자들이다. 지난 5일 입소해 2주간 진행하고 있는 이번 과정에는 총 12명이 함께 하고 있다. 서울, 부산, 청주, 강화, 대전, 성남, 영덕 등에서 소상공인 사업체를 운영하다 문을 닫고 각자 나름의 이유로 여기에 왔다.

“회차당 최대 25명 정도를 받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정원의 절반 정도만 채워졌다. 첫 주는 명상 등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과정을 진행했고 2주차부터는 재창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입지 선정 등 실무 과정 중심으로 내용을 채우고 있다.” 재기개발원의 실력을 도맡아 하고 있는 박동훈 부장의 설명이다.

죽도서 ‘소상공인 재도전캠프’ 5기 과정 진행 2주간 새벽 5시 기상, 100배 명상, 산책 일정 술·담배·커피 허용 안 돼… 휴대폰도 수거

MS가스그룹 창업주 전원태 회장 사재로 시작 2011년부터 34기 과정에 사장 등 500여명 참석 가장 중요한 건 ‘정신건강’… 자신 잘 추스려야

기자가 이곳을 찾은 날에도 참가자들은 전문 강사로부터 ‘창업자금조달 및 지원사업 활용방법’, ‘사업계획서의 이해와 작성’에 대한 강연을 오전·오후로 나눠 들었다.

5시 기상, 100배 명상, 새벽·저녁 산책은 매일의 루틴이다. 이곳에서 술과 담배, 커피는 허용하지 않는다. 아침과 저녁에는 식사를 제공하지만 저녁은 감자와 계란이 전부다. 휴대폰도 수거한다. 하루에 특정한 시간이나 긴급하게 연락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전화를 쓸 수 없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비우기 위한 일환이다.

들어온 지 열흘이 넘었으니 적응할 법도 한데 매일 새벽에 일어나 해야 하는 100배는 쉽지 않다. 그날의 선창자가 “1배요”를 외치면 나머지가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함께 절을 한다. 51배부터는 “감사합니다”로 구호가 바뀐다.

한 캠프 참가자는 “아직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들고 적응이 되질 않는다”고 귀뜸했다.

4월의 차가운 새벽 공기에도 등줄기에 땀이 흐르고 숨이 가빠진다. 일부 참가자는 힘에 부쳐 100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앉아 명상으로 대신한다.

이복수 재기개발원장은 “참가자 중에는 세상을 잘 몰랐다면 감정이 북받쳐 우는 분들도 있다. 그러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다. 산책을 할 때도 3m씩 간격을 두고 걷는다. 혼자만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저녁 식사후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다시 산책할 때는 새벽에 갔던 길을 거꾸로 간다. 여기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했다.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이 진행한 소상공인 재도전 캠프 5기 참가자들이 죽도에 있는 명상바위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며 명상을 하고 있다.

100배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30여분 동안 산길을 걷는다. 죽도의 상징인 대나무밭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죽도는 임진왜란 당시 화살대를 만들기에 안정맞춤인 대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한산도가 바라 보이는 죽도 동쪽의 명상바위 위에선 새벽 바람과 떠오르는 태양을 온몸으로 맞으며 명상에 잠긴다.

기상체조, 100배, 산책, 명상 등을 다 마쳤는데도 시간은 오전 7시가 채 되지 않았다. 산책길 끝인 연수원 뒷편에는 정호승 시인이 쓴 시 ‘바다에 대하여’가 유독 눈에 들어온다.

“바다까지 가본 사람들은 말한다. 결국 바다는 보이지 않는다고. (중략)바다를 딛고 굳세게 일어난 사람들도 말한다. 더이상 바다에 밧이 닿지 않는다고. (후략)” 정호승 시인은 이곳 연수원을 방문해 강연을 하기도 했다.

세수 등 개인 준비를 하니 종소리가 들린다. 7시30분. 아침 식사 시간이다. 재기개발원이 들어서기전 이곳은 죽도초등학교였다. 학생들의 쉬는 시간과 수업 시간을 알리던 학교종은 어느덧 세월이 흘러 ‘밥값’을 하기위해 다시 도전하는 이들의 밥대를 알려주는 반가운 소리로 바뀌었다.

재기개발원은 부산경남지역에서 산업가스 사업을 시작해 지금은 전국구가 된 MS가스그룹(MS Corp)의 창업주 전원태 회장이 폐교를 사들이고 사재를 털어 만든 곳이다. MS종합가스, MS에너지, MS인천가스, MS이엔지, MS머트리얼즈 등의 계열사를 두고 있는 MS가스그룹은 지난 2024년에 창립 50주년을 맞기도 했다.

이곳 재기개발원은 누가 시켜서 만든 것이 아니다. 전 회장 본인도 사업에 실패해 죽을 고비까지 넘긴 아픈 경험을 더 이상 후배 기업인이나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하지 않고 다시 도전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자는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한 일이다. 그래서 이곳의 모든 과정은 무료다.

재기개발원은 2011년 당시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으로부터 민간기관 최초로 공익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기도 했다.

전 회장은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실패는 자산이다. 실패 없이는 성공도 없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재기라는 게 꼭 때돈을 버는 게 아니다. 마음 바뀌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그게 재기다. 무너진 가정이라도 굳건하게 세울 수 있으면 그것도 재기다. 내가 (여기를 거쳐간) 그들에게 쌀을 받을 것이냐, (내가) 죽으면 쌀을 받을 것이냐. (나는) 세상에 마음만 남기고 갈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웃었다.

2011년부터 재도전과 재창업을 원하는



‘소상공인 재도전캠프’ 5기 참가자들이 전문 강사로부터 창업 관련 강의를 듣고 있다.

/김승호 기자

중소기업 경영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세대 등을 대상으로 ‘재도전 힐링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캠프는 이번 소상공인 5기까지 총 34기를 배출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포함해 3년 가량은 운영을 하지 못했다. 그 사이 이곳을 거쳐간 참가자만 500명을 훌쩍 넘어섰다. 강연자도 종교인, 심리전문가, 기관장, 재도전 전문가,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100명이 넘는다.

이런 이유로 재기연수원은 ‘재도전 사관학교’가 됐고 통영 죽도는 ‘재기의 성지’로 탈바꿈했다.

연수원 초기에는 캠프 과정이 4주로 더욱 혹독했다. 이곳에서 만난 참가자 유영운씨는 “가구사업을 하다 접은 후 마음을 잡기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여행 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곳에 들어와 마음이 많이 가라앉았다. 그동안 (사업하느라) 내 정신상태를 돌아볼 기회가 없었다. (여기서)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다른 참가자인 이승희씨는 “운영하던 공인중개사 무소를 접고 이곳에 왔다. 스스로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 먹고사느라 나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나같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공간이 꼭 필요하다. (나카면)이젠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기개발원 입구 가파른 언덕길 한쪽에는 전 회장이 손수 지은 ‘묵은 마음 비워서 맑고 둥근 마음만 가득 채워 가는 곳’이라는 의미인 ‘허밀청원(虛密淸圓)’이란 글귀가 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이다. 다음이 육체건강이고 그다음이 돈이다. 눈을 크게 뜨고 정신 바짝 차리면 할 게 많이 보인다. 돈만 보니 다르게 안 보인다. 자신을 잘 추스리고 가족들 잘 챙기고 형제간 우애있게 지내면 그게 성공이다.”

죽도를 떠나오는 배 위에서 전 회장의 어록이 자꾸 뇌리에 박힌다.

/죽도(통영)=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경남 통영 한산면 죽도에 재기개발원을 만든 전원태 MS가스그룹 회장이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